

석탄일 무각사서 4개 종단 합창단 '우정의 노래'



'부처님 오신 날'인 12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에서 열린 '봉축음악제'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원불교 광주·전남교구·광주 무진교회·무각사 합창단이 연합합창곡 '우정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종교·세대 벽 허문 '화합 하모니'

가톨릭·기독교·불교·원불교 합창단 100여명 '평화 메시지'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 날인 12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주지 청학) 오색의 연등이 내걸린 경내에 가톨릭, 기독교, 불교, 원불교 4개 종교단체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졌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가톨릭합창단,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음합창단, 광주 무진 교회 성가대, 무각사 합창단 100여 명이 함께 어우러져 '우정의 노래'라는 합창곡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이자 천주교 광주대교구 총대리 주교인 김희중 신부, 김

현 원불교 광주·전남 교구장,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 장관철 무진교회 목사도 함께 해 화합의 의지를 다졌다.

김희중 총대리 주교는 "종교 간의 벽을 허물고 가르침을 함께 나누자"며 "사랑과 자비는 교회와 법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4개 종교단체가 함께 그 나눔과 가르침을 실천하면 좋겠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무각사가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 마련한 '봉축음악제-축복의 노래, 행복의 노래, 감사의 노래' 무대에 선 합창단들은 각 종교단체를 대표하는 만큼 아

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이기 위해 2~3주 전부터 틈틈이 노래 연습을 해왔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남이시여' '일원의 빛과 열' '오호라 꽃잎이여' 등 각 종교계를 대표하면서도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곡들과 '아름다운 강산' '내가 만일' 등 시민들도 함께 어우러져 부를 수 있는 가요 등을 선보였다. 특히 무각사 합창단은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며 울동까지 선보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무진교회 성가대를 이끈 이길선(51·광주시 북구 문흥동) 집사는 "주차장을 함께 쓸 정도로 가깝게

위치해 있었지만 함께 모임을 하거나 행사를 가져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오늘 행사는 종교는 달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정순옥(여·55·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가톨릭 신자이지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무각사를 찾았다"며 "4개 종교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런 자리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기획한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은 "서로 다른 형식으로 예배와 예배를 올릴지라도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서로 통한다"며 "종교간, 세대간의 벽을 허무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기능 상실한 도로 주차장으로"

양동시장 상인들 불행 타개책 건의...서구 적극 검토

광주 양동시장 상인들이 적치물을 쌓아진 철거할테니 이용률이 낮은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극심한 불행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주차장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12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최근 양동시장 상인 450명은 "시장 가운데를 관통하는 2차선 일방통행 도로가 제 기능을 상실한 만큼 도로 대신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인들은 건의문에서 "문제의 도로는 소방도로로 지정돼 있지만 2개

차로 가운데 1개는 각종 적치물이 쌓여 있고 통행량도 많지 않다"며 "이처럼 일방통행 도로 가운데 기능을 상실한 1개 차로를 주차장으로 만들 경우 노상 적치물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고 자율적인 정화활동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인들은 일방통행 도로 1개 차로를 주차장으로 만들 경우 50~60면에 달하는 주차공간이 추가로 확보돼 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동시장에는 주차장 164면이 설치돼 있으나 위치 등의 문제로 활용

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상인들은 "시장 내 이용률이 낮은 일방통행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접근성이 용이해져 손님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극심한 불행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서구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사용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떨어진 도로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인들의 주장과 구체적인 타당성·법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 금형 기술인력 '팍팍' 지원

4개월 교육비·교통비 지급, 취업도 알선

광주시에 집중 육성하는 5대 신기술 응용산업 가운데 하나인 금형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교육생을 모집한다.

광주시는 "금형업체 증가에 따라 광주지역 청년실업자와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국폴리텍V대학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금형기술 인력양성 과정의 2008년도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약간 4개월 과정으로 CAD/CAM, 금형공학기계 가공기술 분야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교육비는 시와 노동부가 전액 지원한다. 모집인원은 30명으로 원서는 오는 16일까지 광주 북구 매곡동 한국폴리텍V대학 광주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접수하며 교육생에게는 매달 교통비를 지급하고

수료 후 취업도 알선해준다.

시는 자동차, 전자, 광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기술인 금형산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 금형시험생산센터를 건립하는 등 집중 육성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 실무형 인력을 양성해 금형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

17~18일 5·18묘지 경유 버스 증편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28주년 기념행사 기간인 17일과 18일 상무지구~국립 5·18민주묘지를 오가는 518번 시내버스 운행 간격을 25분에서 18분으로 증편기로 했다.

아울러 무등산 증심사~장등동간

지원35번 버스는 5·18묘지와 영락공원까지 연장, 18분 간격으로 운행하기로 했다. 이들 버스는 우산동 무등도서관 정류장에서 무료 환승할 수 있다.

또 금남로에서 5·18 전야제 등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는 17, 18일과 24

일에는 옛 도청 앞을 지나는 시내버스 22개 노선과 공회버스 1개 노선은 무료 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념식이 열리는 18일 5·18민주묘지 주변 도로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추모 행렬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에게 가급적 대중 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Festival

25,500부터 (10,7,8,9월)에 한하여

1인 기준 1인 1박만 21만원으로 최대 10% 할인에 최대 부가서비스

☎예약문의 | 02-228-8000 ☎예약문의 | 02-228-4711-2

신협 가족사랑 캠페인

경쟁평가 전국 1위 기념

6.56% 연금리

7.65% 연금리

신협신용협동조합

☎신협 4개 광주지점 방문권 ☎224-1883, 1921

국제외식산업(주)

스카이뷔페 OPEN

1062-262-2278